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277-287,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2.277

남자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양선경, 송원영*
건양대학교

The Influences of internalized Shame on Social Anxiety of male high school student: Mediating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unKyeong Yang,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으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만을 통해서만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 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충청남도 지역의 고등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사회불안척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설문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적절감은 사회불안과 상관이 높았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융합,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매개효과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ocess of social anxiety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with prescribed internalized shame.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research, the study set a model which supposes tha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s mediator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 total of 382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In particular, the sense of inadequacy, which is a subordinate concept of the internalized shame, was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Seco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howed a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hese results should be studied not only in cognitive factors contributing to social anxiety but also in the individual inner workings of psychological factors.

Key Words : Convergence,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Mediating effect

1. 서론

사회불안이란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일련의 증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워 보이거나 당황스러워 하는 불안 증상이 노출될까 두려워 지속적인 공포를 견디거나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1].

*Corresponding Author : WonYoung Song (song@konyang.ac.kr)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사회불안은 다른 정신장애에 비하여 유병률이 높은 장애이다. 국내 정신장애 유병율 역학조사 결과, 한국인의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로 225만명에 육박하는 추정환자수가 보고되었다[2]. 불안장애는 초기에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는 향후 성인기에 겪는 사회적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3].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장애이다. Morris와 Masia는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이 발병하는 발달학적 원인을 아동의 인지적 특징으로 설명하였다[4]. 아동의 인지수준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자기평가를 하기 어렵고 스스로의 불편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해외 역학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사회불안은 비교적 흔한 증상 중 하나로 평생 유병률이 5~15%에 달하며 평균 15.5세에 발병한다[5]. 서양의 15.5세는 한국 나이로 고등학생에 속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불안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6,7]. 일반적으로 불안장애는 여성에게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사회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사회불안 발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남자 고등학생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8,9]. 이 같은 결과는 남자고등학생만의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경은과 하은혜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수행불안과 행동억제기질이 여학생에게만 유의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대인불안과 외상경험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불안의 성별 효과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0].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성역할을 내면화한 남자고등학생들이 여자고등학생들에 비해 성취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남자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을 심화시키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남자고등학생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적은 실정이다[11].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어려움에 개입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생활전반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에 관련된 메타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공적자의식, 수치심과 같은 변인이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의 유의미한 변인들로 확인되었다[12]. 여러 변인이 있으나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적인 인지특징 중 하나는 수치심이다[13].

수치심(shame)이란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영향을 주는 정서로서 타인에게 노출된 스스로에 대한 평가 또는 성격적 특성, 행동적 특성이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관련이 있다[14]. 수치심은 병리학적 문제들과 경험적으로 중요한 연관이 있으며, 높은 수치심을 갖은 사람일수록 사회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15, 16]. 수치심은 크게 상태수치심(State shame)과 특질 수치심 또는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으로 분류된다. 상태수치심은 외부에서 기인되며 강렬한 정서를 유발하고 이내 사라지지만 내부에서 기인되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만한 안전한 상황에서도 수치심을 경험하게 해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기 쉽다[17].

청소년기는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수치심에 더욱 취약한 단계이다. 청소년기는 자기정체성을 조절하는 신경생리학적 시스템의 급속한 성숙시기로 추상적인 사고와 자의식이 동시에 발달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이다[18,19]. 더욱이 이 시기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발표나 시험처럼 자신의 행동을 평가 받는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치심을 경험하기 쉽다[20]. 기존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을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회불안 발생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이 될 수 있으나 경로에 있는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변인에 대한 실마리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Chang에 따르면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회피하고자 높은 기준을 세워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적 경향을 보인다[21].

완벽주의란 수행에 대한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뒤따르는 성격적 특질을 말한다[22]. 완벽

주의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중요한 인물에 의해 높은 기준이 세워지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분류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완벽주의는 정신건강문제의 발현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23]. 그러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불안과 부적상관이 나타나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두려움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민감할수록 심리적 고통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대한 개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란 완벽주의 성격의 일부로서 완벽주의적인 행동의 대인관계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Hewitt 등은 특성적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24]. 특성적 완벽주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태도가 주가 되는 특성이라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표현적 욕구가 중점인 특성으로 외부로부터 완벽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주목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완벽하게 지각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촉진하고 불완전하게 지각된다고 생각 되는 행동은 은폐하려는 특성이 있다[25].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결핍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감추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자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2,24]. Cox와 Chen은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26].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을 직접적으로 매개하거나 혹은 완벽주의의 부분매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7]. 상기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사회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두 관계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x와 Chen의 모형을 토대로 남자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간접 경로만을 설정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두 사이의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26]. 한편, 구조방정식 분석은 단일한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이 유의할 수 있다는 점과 부분매개와 완전매개 모두 유의하였다는 선행연구의 보고를 고려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의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인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델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부권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거된 382개의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연구동의서명을 하지 않은 설문지 20부와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14부를 제외하여, 총 34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고등학생 1학년 76명(21.8%), 2학년 272명(78.2%)이었다. 평균연령은 17.78세이고 표준편차는 .412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고등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이 우리말로 번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28,29]. 총 30문항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0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총 4요인으로 부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처벌 5문항, 실수불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6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Cook의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96이었으며, 이인식과 최해림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93이었다[28,29].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다.

2.2.2 한국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ewitt 등이 개발한 것을 하정희가 번안하고 한국문화에 맞게 문항을 추가하여 재구성 및 타당화한 완벽주

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K, PSPS-K)를 사용하였다[24,30]. 총 1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Liker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총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PSP) 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Non display of Imperfection, NDP) 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Non disclosure of imperfection, NDC)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정희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30].

2.2.3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 척도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D. Watson과 Friend가 개발하고 이정윤과 최정훈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사용하였다[31,32]. 총 2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5점)의 Liker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사회적 회피 14문항, 사회불안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사회불안 및 사회회피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정윤과 최정훈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91로 나타났다[32].

2.3 조사절차

본 연구는 충청남도 논산, 부여 지역의 인문계 사립 고등학교, 인문계 공립 고등학교에 1학년,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전 각 학교 학생주임에게 연구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교사 동행 아래 연구 참가자에게 비밀유지와 설문지 통계처리 과정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으로 학교 내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2,000원 상당의 간식이 증정되었다. 완료된 설문지는 담당교사가 직접 회수하여 조사 당일 전달받았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참가자가 연구자료 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설문지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과정 처리를 거쳤다. 첫째, 조사자료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33].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

Table 1. Correlation of Internalized shame, Social anxiety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N=348)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Inadequacy	-											
2. Emtiness	.733***	-										
3. Self punishment	.724***	.791***	-									
4. Fear of mistake	.685***	.563***	.677***	-								
5. Total of ISS	.885***	.884***	.910***	.834***	-							
6. Social avoidance	.355***	.200***	.230***	.381***	.329***	-						
7. Social anxiety	.405***	.275***	.290***	.383***	.382***	.825***	-					
8. Total of SADS	.405***	.275***	.290***	.383***	.382***	.825***	1.000***	-				
9. PSP	.244***	.265***	.327***	.306***	.326***	.055	.109*	.109*	-			
10. NDP	.235***	.242***	.238***	.435***	.330***	.316***	.273***	.273***	.345***	-		
11. NDC	.263***	.306***	.310***	.303***	.339***	.302***	.310***	.310***	.382***	.419***	-	
12. Total of PSPS-K	.319***	.350***	.386***	.438***	.427***	.249***	.270***	.270***	.845***	.695***	.732***	-

*p< .05, **p < .01, ***p < .001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정규성검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가 집단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검정은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정규성 검정 결과 왜도 -.20~1.05, 첨도-.70~.7로 나타나 응답자료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소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과 사회적 회피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측정 변수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태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의 경우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82, p<.001). 마찬가지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70, p<.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27, p<.001).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모두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각각, r=.405, p<.001, r=.275, p<.001, r=.290, p<.001, r=.383, p<.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세 가지 하위요소 중 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 언어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소인 사회적 회피(각각, r=.316, p<.001, r=.302, p<.001), 사회불안(각각, r=.273, p<.001, r=.310,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사회회피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055, *NS*). 한편, 독립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매개변인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변인은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r=.339, p<.001) 로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326, p<.001, r=.330, p<.00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변인은 실수불안으로 나타났다(r=.438, p<.001). 분석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부적절감은 사회불안을 가장 잘 예측하는 하위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실수불안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가장 잘 예측하는 하위변인으로 확인되었다.

3.2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측정변수들의 표준요인부하량(β)이 모두 .50이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고 유의성(C.R.)도 1.965보다 커서 기준에 적합하였다. 평균분산추출(AVE)는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또한 0.7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판별타당도에 이상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β	B	S.E	C.R	AVE	CR
Internalized shame	Inadequacy	.847	1.000				
	Emtiness	.853	1.240	.064	19.512	0.836	0.945
	Self punishment	.889	1.182	.057	20.693		
	Fear of mistake	.755	1.056	.065	16.245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544	1.000				
	Non display of Imperfection	.620	1.049	.147	7.112	0.618	0.750
	Non disclosure of imperfection	.690	1.048	.144	7.279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861	1.000			0.910	0.948
	Social anxiety	.959	1.093	.090	12.099		

없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기준에 대하여 Hair 등은 x^2, CFI, TLI, SRMR, RMSEA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Hoyle와 Panter는 x^2, GFI, CFI, TLI 등을 추천하고 있다[34,35].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합지수 GFI(Goodness-of-Fit-Index), 터키-루이스 적합지수 TLI(Turker Lewis Index), 비교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오차평균의 제곱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x^2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지수기준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GFI, TLI, CFI는 .90 이상을 좋은 적합도로 여기며 RMSEA는 0.05 이하를 매우 적합으로, 0.05~0.08를 적당한 적합으로, 0.1 이상을 좋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본다. 분석 결과 GFI=.907, TLI=.919, CFI=.938, RMSEA=.086, x^2=127.7, p=.0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ir 등과 Hoyle와 Panter에 의해 제시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34,35].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세 가지 변인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그리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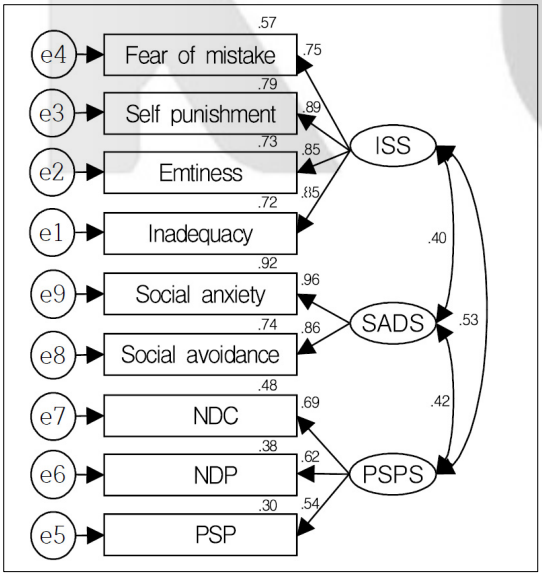


Fig. 1. Factor models and standardized factor estimates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ex

x^2	P	GFI	TLI	CFI	RMSEA
127.7	.000	.907	.919	.938	.086

3.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간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구조모형검증

Table 4. Comparison of Goodness of Research Model and Alternative Model

Model	x^2	df	CFI	TLI	NFI	RMSEA (90% CI)
1. Research model	154.30	24	.922	.883	.909	.025 (.004-.405)
2. Alternative model	164.90	25	.916	.879	.903	.127 (.048-.20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부분매개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불안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두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x^2=154.30, df=24, p<.001로 유의하였으며 CFI=.922, TLI=.883, NFI=.909로 대체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대안모형의 적합도는 x^2=164.90, df=25, p<.001, CFI=.916, TLI=.879, NFI=.903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미미하게 낮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RMSEA를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대안모형 적합도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RMSEA는 0.05 이하를 매우 적합으로 보고 있으며 0.05~0.08를 적당한 적합, 0.1 이상을 좋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본다. 연구모형의 RMSEA는 90% 신뢰구간에서 .025로 매우 적합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대안모형의 RMSEA는 90% 신뢰구간에서 .127로 나타나 기준점인 0.1을 초과하여 좋지 않은 근사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관계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형 간 x^2의 차이를 통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 결과 x^2=10.6으로 자유도가 1일 때 임계값인 3.8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이 대안모형보다 경험적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여러 적합지수를 고려해 볼 때 인과모형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최종구조모형은 Fig. 2.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한 최종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531, p<.001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Table 5. Path Coefficient of Final Model

Structural Path			β	B	S.E	C.R.	p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	Internalized shame	.531	.511	.080	6.383***	.000
Social anxiety	←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288	.241	.073	3.306***	.000
Social anxiety	←	Internalized shame	.244	.197	.058	3.38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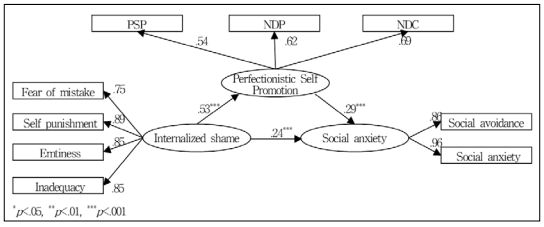


Fig. 2. Final Model

타났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288, p<.001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β=.244, p<.001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Shrout과 Bolger가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측정하고, 모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경험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36].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 β=.244, p<.05,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β=.153, p<.01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Validate Mediating Effect of Final Model

		Internalized sham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Total Effec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531**(.009)	.000
	Social anxiety	.397**(.010)	.288**(.007)
Direct Effec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531**(.009)	.000
	PerfecSocial anxiety	.244*(.012)	.288**(.007)
Indirect Effect	Social anxiety	.153**(.009)	-

*p<.05, **p<.01,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모형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며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를 지지한다[37].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인과 큰맥을 같이 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수치심과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2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수치심이 내면화되어 일종의 성격적 특성으로 자리 잡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고통의 감소전략으로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용될 경우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발달학적 특징이 있으며 아동기와 달리 학업평가, 입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장면에서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어진다. 이러한 노출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완벽한 자신을 제시하여 문제상황을 탈피하려는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완벽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배제하고 자신의 완전성을 선전하거나, 불완전성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비적응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경우 평가에 대한 강한 불안과 공포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동귀, 서해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집단의 인정과 수용에 예민하다고 하였다[38].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청소년의 발달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청소년

이 성인에 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self)'를 표상하고 평가하는 정서적, 인지적 개념이기 때문에 청소년은 자신을 향한 사회적 평가 장면에서 부정적인 자기상을 숨기는 것에 더욱 몰입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자기를 타인에게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회피, 사회불안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6]. 내면화된 수치심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적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완벽주의적 경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3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시제시의 하위요인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불안, 사회회피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회불안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6]. 한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사회불안과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사회회피와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정희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미성숙 방어, 적응적 방어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에 부적응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응적 측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27].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적 대처전략으로의 여겨지며 초기 완벽주의연구에서 강조하였던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에 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완벽주의경향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증가할 수 있으나 불안야기 상황에 대한 적응적 완벽주의는 사회불안의 대표적 행동인 사회회피경향과 상관관계가 희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장면에서 사회불안을 다룰 때 상담자는 청소년이 완벽주의적 요인 중 주로 어떠한 요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사회불안이 예상되는 장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부분매개로 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부정적인 자기상을 은폐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공포증, 사회불안 같은 사회적응적 문제를 겪기 쉽다는 연구결과와 관련된다[40,41]. 즉,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진 청소년은 부적응적 대처방식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격특성으로 굳어진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의 모습을 은폐하려는 동기로 인해 타인에게 완벽주의적인 자기표상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사회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을 부분매개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간 경로를 없앤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두 변인 사이를 완전매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변인탐색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수치심과 사회불안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수치심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연구하였다[42]. 이 같은 경향은 수치심이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상담장면에서 비교적 변화시키기 쉽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을 설명하는 성격적, 인지적 특질이며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변화되기 어렵고 고착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 주로 매개변인으로 다루어진 내면화된 수치심을 독립변인으로 가정하여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구체적인 대처전략을 지도할 수 있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각의 개념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들에게 상담전략을 모색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중부권인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며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청소년의 대표성을 띄는 연구결과라고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론을 바탕으로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나 여학생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성별 간 존재할 수 있는 유의한 차이가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별 공간이 아닌 개방된 교실에서 응답하였기 때문에 솔직한 반영이 어려웠을 수 있고 이에 각 변인들의 측정치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방어를 낮출 수 있는 안전한 응답 장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병리적 특징을 보이는 임상군이 아닌 일반 청소년을 표집하여 측정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사회공포증 또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임상군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상담장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거나 임상적 증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DOI : 10.1176/appi.books.9780890425596

[2] K. H. Lee & E. H. Ha.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umatic Experience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1-8.

[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A Survey on Actual Condition of Mental Health Reports in 2016.*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ttp://www.mohw.go.kr

[4] Morris. T. L &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452-458.
DOI : 10.1207/s15374424jccp2704_9

[5] Bernstein Gail. A, Borchardt Carrie. M & Perwien Amy. R. (1996).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10-1119.
DOI : 10.1097/00004583-199609000-00008

[6] Todd. B. Kashdan & James. D. Herbert.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7] Essau. C. A & F. Petermann. (1999).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pidemiology, Risk Factors and Intervention. *MMW Fortschr Med, 141(27),* 32-35.

[8] K. E. Lee & E. H. Ha. (2011). A Test of a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2),* 39-57.

[9] Y. Wu & M. Y. Bang. (2012).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Social Anxiety of At-risk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8(2),* 235-253.

[10] K. E. Lee & E. H. Ha. (2011). A Test of a Vulnerability-Stress Model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1(2),* 39-57.

[11] Weinstock. L. S. (1999).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and management of social anxiety disorder.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0,* 9-13.

[12] Y. K. Hong & K. S. Lee. (2013).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Phobia : 2011-2013.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4),* 295-310.

[13] Marks, IM. (1969). *Fears and phobias.* London W. In : Heinemann Publishing.

[14] Gilbert. P. (1998). *What is sham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ublishing.

[15] Retzinger. S. M. (1998). *Shame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ublishing.

[16] Gilbert. P. (2000). The relationship of shame,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 The role of the evaluation of social rank.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 7(3),* 174-189.
DOI:10.1002/1099-0879(200007)7:3<174::AID-CPP236>3.0.CO;2-U

[17]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DOI : 10.1300/J020v04n02_12

[18] Schore. Allan N. (2015).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New york : Routledge Publishing.

[19] O. B. Jung. (2008).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 Hakjisa Publishing.

[20] Amies. Peter L, Gelder. MG, & Shaw. PM. (1983). Social phobia: a comparative clinical stud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2(2),* 174-179.
DOI : 10.1192/bjp.142.2.174

[21] Chang. Edward C. (2002). Examining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 Social problem solving as a buff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5),* 581-595.
DOI : 10.1023/A:1020329625158

[22]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U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shing.
DOI : 10.1037/10458-000

[23] Egan. S. J, Wade. T. D & Shafran. R. (2011). Perfectionism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 A clin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2),* 203-212.
DOI : 10.1016/j.cpr.2010.04.009

[24] Hewitt. Paul L 1st Author et al.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25] J. H. Ha. (2011). Mediation Effect of Defense Styles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4),* 921-941.

[26] Cox. Sarah L & Chen. Junwen. (2015). Perfectionism: A contributor to Social Anxiety and Its Cognitive Process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7(4),* 231-24.
DOI : 10.1111/ajpy.12079

[27] J. H. Yoon. (2017).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 Focusing on mediating models amo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0),* 253-278.
DOI : 10.21509/KJYS.2017.10.24..10.253

[28] Cook. D. R & Coccimiglio. J.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 Technical manual.* Multi-Health Systems Publishing.

[29] I. S. Lee & H. R. Choi. (2005).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3),* 651-670.

[30] J. H. Ha. (2010). A Validity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2),* 221-239.

[31] Watson. D. & Friend. R. (1969).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32] J. Y. Lee & C. H. Choi. (1997).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s of Social Phobia Scales (K-SAD, K-FN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33] K. S. Kim. (2004).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 SPSS academy Publishing.

[34] Hair. Joseph F, William C Black, Barry J Babin, Rolph E Anderson & Ronald L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saddle River: Pearson Prentice Hall Publishing.

[35] Hoyle. RH & AT Panter. (1995).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Goodness of Fit Indic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11(3), 325-344.
DOI : 10.1177/0049124183011003003

[36] Shrout. Patrick E & Niall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DOI : 10.1037//1082-989X.7.4.422

[37] Flett, G & Hewitt, P. (2014). Perfectionism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Social Anxiety. *Social Anxiety :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3,* 159-187.
DOI : 10.1016/B978-0-12-394427-6.00007-8

[38] D. H. Lee & H. N. Suh. (2010). The Characteristics of High and Low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1),* 91-110.

[39] Ashby. Jeffrey S, Rice. Kenneth G & Martin. James L. (2006). Perfectionism, Shame,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2),* 148-156.
DOI : 10.1002/j.1556-6678.2006.tb00390.x

[40] Saboonchi. Fredrik & Lundh. Lars-Gunnar. (1997). Perfectionism, Self-consciousness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921-928.
DOI : 10.1016/S0191-8869(96)00274-7

[41] Y. A. Jang, J. M. Kim, "The adjusted mediated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rom the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in academic procrastin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8, pp. 131-156, 2014.

[42] S. W. Lee, M. S. Kim & N. M. Yan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t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1),* 292.

양 선 경(Yang, SunKyenog) [정회원]



- 2018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학(석사)
- 2018년 현재 : 부산대학교병원, 연구원
- E-Mail : lllladidas@naver.com
- 관심분야 : 임상심리, 청소년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 E-Mail : lllladidas@naver.com

송 원 영(Song, Wonyoung) [정회원]



- 2002년 3월 ~ 2004년 11월 :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강사
- 2004년 12월 ~ 2006년 8월 : 국가청소년위원회 선임연구원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철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임상심리, 교정심리, 청소년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 E-Mail : song@konyang.ac.kr